

나이백, 글로벌 1위 임플란트 업체 스트라우만과 공급계약 247억원 규모 체결

- ▶ 2019 년~2024 년 약 5 년간 제품 공급 계약 체결
- ▶ 최근 매출액의 392% 해당하는 계약 규모

[2019-02-22] 펩타이드 전문기업 나이백(대표이사 정중평, 138610)이 글로벌 1위 임플란트 전문 업체인 스트라우만과 치과용 골재생 바이오소재, 콜라겐 치주조직 재생시트 등 총 5품목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나이백, 스트라우만 기업 로고>

본 계약 규모는 22,00만 스위스 프랑 원화로 약 247억원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이 금액은 나이백의 최근 매출(2017년도)의 392%에 해당한다.

회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5개 품목에 대해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계약은 연도 별 총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계약의 형태로 이뤄졌으며, 연도별 점진적으로 금액을 확대되는 구조의 계약이다.

실제로 나이백은 2014년부터 스트라우만과 손을 잡고 미국, 유럽 등 대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나이백은 제품 주문량 증가에 따라 2019년 새로 품목을 확정하고 계약물량을 늘리며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이백은 지난해 8월 동사와 OCS-B 콜라겐(OCS-B Collagen), 리제노머(Regenomer), 크린플란트(Clinplant)에 대한 품목 추가 계약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본격적 수출 판로를 개척한 셈이다.

나이백 관계자는 “이번 추가계약을 통해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대상으로 물품 공급을 하게 되어 수출 관련 매출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며 “2017년도에 치과용 펩타이드 응용기술에 대한 기술이전도 체결한 바 있어 제품뿐 아니라 기술적 협력사로서 발돋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이백은 20일 노벨바이오케어와도 76억원에서 164억원 규모로 수출 확대 재계약을 공시를 통해 밝힌 바 있다.